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

: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 은 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도 남 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I. 문제제기

생애 초기 3년간은 전 영역에 걸쳐 발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이며,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 가정 및 사회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 특성은 아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지연, 곽금주, 2008; 이진숙, 한지현, 2004;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McCulloch & Joshi, 2000).

아동의 가정환경은 저소득층과 빈곤층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생애초기의 지속적 결핍환경이나 가난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 나아가 사회적 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 종단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즉, 초기의 결핍된 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기의 학업성취와 성인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eckman, Lochner, & Todd, 2008). 아동기 초기 언어발달에 미치는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의 영향이나(이지연, 곽금주, 2008), 인지 발달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강희경, 2001; 김선숙, 2008)에 대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자녀를 처음 출산하게 되면 가구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아이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총 가구지출의 35%에 해당하는 양육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서문희, 최윤경, 이세원, 신윤정, 2010). 그러므로, 생애초기 아동의 가구소득수준은 발달에 대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라 할 부모의 부부 관계, 아버지의 양육 참여,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또한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경옥, 이정수, 이지영, 2011; 이희정, 2011; 박경자, 김현경, 2011) 이러한 변인이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환경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지지적 관계나 안전에 대한

*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2011).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인식을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김선숙, 2008; Stevenson, 1998), 지역사회내 인적·물적·사회적 지지체계가 많을수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결과(Morrow, 2000)는 가정 밖의 지역사회 환경과 양육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모의 양육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양육실제), 양육지식과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선행 요인들이므로 영유아기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육방식은 어머니의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생각하는 양육신념이 발현되는 형태로,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아동을 대하는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경험을 중요시하는 어머니의 아동들이 인지적 발달이 더 높으며 과도한 애정을 중시할수록 문제행동이 나타났다(이은주, 민하영, 2006).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양육 지식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의 수준도 높았다(이주연, 2009).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는 편인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가 영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양육 신념이 부정적인 경우, 어머니의 정서 상태나 지지 기반이 약한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한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을 대하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연구결과(임순화, 박선희, 2010)에 따르면 어머니가 직업이 없고, 소득이 낮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환경의 지표인 가구 소득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인적·물적·심리적 환경, 부모의 양육특성, 그리고 아동의 발달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구소득 수준 및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특성, 아동의 발달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의 양육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구소득에 따라 자녀의 발달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구소득에 따라 자녀의 양육 환경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가구소득 수준별로 양육 특성,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특성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우리나라 영유아 2,000 가구 조사 자료 중 최종 공개용인 2010년 실시 3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조사에 포함된 총 패널 수는 만2세 아동이 있는 1,802가구이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성,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패널 아동들이 12세가 되는 2020년까지 총 10차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차수별 조사내용은 아동발달을 측정하는 심리검사와 아동을 둘러싼 부모 등 주요 환경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아동이 다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패널 아동이 만2세가 된 시점에 수행된 조사 결과이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상관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2. 주요 변인

1) 가구 소득

한국아동패널 2010년 조사 자료의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중 경제적 특성에 속하는 ‘가구 총 소득(월 단위)’을 빈도분석하여 전체 가구 중 상위 20%와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를 선별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360.55만원(SD=280.16)이었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450.5만원,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액은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가구는 소득 변인 응답자 1,801가구 중 소득 상위 20% 이상인 364가구, 하위 20% 이하인 375가구로 총 739가구이다.

<표 1>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분류 기준

	사례수(가구)	평균(만원)	표준편차(만원)
소득 하위 20%(저소득집단)	375	169.4	37.35
소득 상위 20%(고소득집단)	364	678.1	480.88
계	739		

2) 부모의 양육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녀 양육 특성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어머니의 양육실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이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는 총4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점수 범위는 4~20

점이다. 측정도구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문항 신뢰도(α)는 .86이다.

양육실제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5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점수 범위는 6~30점이며, Bornstein (1996)의 도구를 번역할 것으로 이형민(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68로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MacPhee(2002)의 양육지식 표준화 척도(KIDI)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로,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지식 정도를 정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점은 최고 13점에서 최저 0점까지 분포가능하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문항은 총 10개 문항 5점 리커드 척도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기현·강희경(1997)이 개발한 도구로, 점수 범위는 10~50점까지이고 아동패널 조사에서 도구 신뢰도는 $\alpha=.82$ 로 나타났다.

3) 자녀의 발달 특성

아동의 발달 특성을 보여주는 변인으로는 K-ASQ 검사점수가 사용되었다.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를 한국식으로 적용한 것이 K-ASQ이다(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9). K-ASQ는 총 5가지 발달 영역,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운동(gross motor), 소근육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수합할 수 있다. K-ASQ의 재검사 신뢰도는 만3세의 경우 .78~.88 정도로 알려져 있다.

4) 양육 환경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 환경 특성으로는 크게 인적 환경과 지역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환경을 구성하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등 부부관계 특성, 그리고 육아에 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한 정도 등 세 가지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 문항은 각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 된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Mainieri와 Grodsky(2006)에 의하면 Chronbach α 는 .79이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82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4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40점이다. Mainieri(2006)에 따르면 문항내적 신뢰도(α)는 .85로 알려져 있고,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는 신뢰도가 .82였다. 어머니의 우울을 재는 도구로는 Kessler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6개 문항인 이 도구는 6~3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essler et al.(2006)의 연구에서 문항 신뢰도(α)는 .89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부부관계 특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변인 중 하나인 결혼만족도는 Chung(2004)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총 4개 문항의 5점 리커드 척도로 최하 4점에서 최고 2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정현숙(2001)에 의하면 신뢰도는 .94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의 부부관계 특성 변인은 부부갈등으로, Markman et al.(1994)의 부부갈등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8개 문항(5점 리커드)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90이다(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 2011).

인적 환경 측정 요소 중 세 번째는 육아를 도와 줄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한 정도에 대한 인식인 ‘육아지원 가용 인력 정도’ 또는 ‘사회적 지원 수준’으로, 이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연구를 기초로 자체 제작한 도구이며(이정림 외, 2011), 문항내적일치도는 .89로 보고되었다. 문항은 총 12개로 점수 범위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적환경과 함께 양육환경 특성 중 두 번째인 지역사회환경을 보여주는 변인으로는 가용 육아 인프라 즉,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충분히 있는지, 여가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한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치안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양육에 적절한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서문희 등(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체 제작하였으며,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인식, 치안 안전성, 안전사고 안전성, 전반적인 양육환경 적절성 등을 5점 리커드식 각 1문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 하위 변인은 1~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변인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분석 변인 구성

주요 측정 영역	구성 변인	
부모의 양육 특성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어머니의 양육실제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발달 특성	K-ASQ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인적 환경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결혼만족도	
양육 환경 특성	부부 관계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인력	육아지원 가용 인력 정도(친인척 수 등)
지역 사회 환경	보육시설 수적 충분성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치안 안전성	
	양육 적절성	사고 안전성 전반적 적절성

Ⅲ. 연구결과

1.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의 양육 특성 차이

고소득 집단에서 아버지의 양육 협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실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양육 스트레스는 저소득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양육특성 차이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아버지의 양육 협조	저소득집단	361	14.3	3.47	-5.01***
	고소득집단	360	15.6	3.33	
어머니 양육 실제	저소득집단	362	33.5	4.92	-4.08***
	고소득집단	357	35.0	4.36	
어머니 양육 지식	저소득집단	358	12.1	2.77	1.48
	고소득집단	351	11.8	2.40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저소득집단	366	31.5	7.23	3.17***
	고소득집단	353	29.8	6.88	

*** p<.001

2.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의 발달 특성 차이

고소득집단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대·소근육운동 능력이나 개인-사회성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발달특성 차이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의사소통 능력	저소득집단	371	50.94	12.414	-3.94***
	고소득집단	359	54.25	10.152	
대근육운동 능력	저소득집단	371	56.87	6.134	-.89
	고소득집단	359	57.27	5.867	
소근육운동 능력	저소득집단	371	52.74	9.205	-1.01
	고소득집단	359	53.40	8.580	
인지적 문제해결력	저소득집단	371	53.42	8.684	-2.08*
	고소득집단	359	54.64	7.072	
개인-사회성	저소득집단	371	54.58	8.885	.26
	고소득집단	359	54.42	8.600	

* p<.05 *** p<.001

3.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환경 차이

양육환경은 인적환경과 지역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인적 환경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고소득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우울 정도는 저소득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은 소득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부부 관계에서는 결혼만족도는 고소득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부부갈등은 저소득집단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 지원 인력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집단보다 고소득집단에 가용 육아지원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인적 환경 차이 비교

인적 환경 변인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부정적) 자기효능감	저소득집단	367	9.69 ^{주1)}	2.88	3.19**
	고소득집단	359	9.03	2.71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자기존중감	저소득집단	364	25.18	2.08	-1.11
	고소득집단	359	25.36	2.08	
우울	저소득집단	364	12.44	4.28	3.12**
	고소득집단	358	11.46	4.19	
부부 관계 결혼만족도	저소득집단	362	14.92	3.34	-3.33**
	고소득집단	358	15.71	2.95	
부부 갈등	저소득집단	351	15.34	5.85	2.15*
	고소득집단	350	14.46	4.91	
지원 인력 사회적 지원 인력	저소득집단	366	44.70	8.05	-4.22***
	고소득집단	359	47.18	7.68	

* p<.05 ** p< .01 *** p<.001

주1) 자기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을 보여줌.

2)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환경 중 육아인프라의 측면에서, 보육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여가나 문화 관련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에서는 고소득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치안 측면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고소득집단이 더 긍정적 환경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환경의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에서도 고소득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지역사회 환경 차이 비교

지역사회 환경 변인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육아 인프라	보육시설 충분성	저소득집단	368	3.44	.97	.31
		고소득집단	361	3.42	.95	
	여가·문화 시설 편리성	저소득집단	368	3.00	1.10	-6.35***
		고소득집단	361	3.49	.98	
양육 적절성 인지	치안 안전성	저소득집단	367	3.05	.85	-6.20***
		고소득집단	360	3.43	.81	
	사고 안전성	저소득집단	367	2.98	.87	-3.86***
		고소득집단	360	3.23	.87	
	전반적 환경 적절성	저소득집단	368	3.20	.84	-5.55***
		고소득집단	359	3.36	.79	

*** p<.001

4. 소득수준별 부모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자녀 발달의 관계

부모의 양육특성과 양육환경, 자녀 발달 간의 관계를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소득 상하 집단별로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집단의 경우

부모의 양육특성과 양육환경, 자녀 발달을 각 영역별로 비교하였다.

(가) 부모 양육특성과 양육환경의 관계

부모가 가진 양육특성과 가정이 처해 있는 양육환경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 환경 중 지역사회환경보다는 인적환경이 부모의 양육특성과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방식(실제)과 상관이 높았고,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도 특히 아버지의 양육협조 정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 중에서는 치안 및 사고 안전성, 전반적 환경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실제와도 상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육아인프라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7> 부모 양육 특성과 양육환경 특성 간 상관관계(저소득 집단)

양육환경특성		부모 양육특성	아버지 양육 협조	어머니 양육실제	어머니 양육지식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인적 환경	어머니 심리적 특성	(부정적) 자기 효능감	-.239***	-.264***	-.005	.439***
		자아 존중감	.004	.058	-.185**	-.016
		우울	-.286***	-.316***	-.020	.551**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479**	.254***	.002	-.346***
		부부갈등	-.442***	-.248***	.043	.371***
	지원인력	육아지원 인력 정도	-.239***	-.335***	-.108*	-.265***
지역사회 환경	육아 인프라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017	.006	.004	-.119*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110*	.117*	-.099	-.133*
	양육 적절성	치안 안전성	.052	.197***	.007	-.248***
		사고 안전성	-.009	.180**	.014	-.271***
		전반적 환경 적절성	.062	.145**	-.021	-.207***

* p<.05 ** p<.01 *** p<.001

(나) 양육 환경과 자녀 발달의 관계

전체적으로 양육 환경과 자녀 발달의 상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집단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 효능감과 우울이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과 소근육 운동 능력 발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계수는 높지 않았다.

<표 8> 양육 환경과 자녀발달점수 간 상관관계(저소득 집단)

양육환경특성		발달 영역	의사 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 해결	개인/ 사회적성
인적 환경	어머니 심리적 특성	(부정적) 자기 효능감	-.137**	-.069	-.122*	.000	-.014
		자아 존중감	-.038	-.006	-.001	-.061	-.033
		우울	-.129*	-.038	-.011	-.009	-.024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088	-.010	.048	-.005	.082
		부부갈등	-.086	.033	-.025	.024	-.021
	지원인력	사회적 지원 인력	.110**	.054	.143**	.085	.023
지역사회 환경	육아 인프라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044	.007	.020	-.051	-.018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022	-.058	.037	-.003	-.028
	양육 적절성	치안 안전성	.092	.033	.071	-.042	-.043
		사고 안전성	.114*	-.005	.090	-.010	.018
		전반적 환경 적절성	.050	.001	.040	-.036	-.041

* p<.05 ** p<.01 *** p<.001

(다) 부모 양육 특성과 자녀 발달의 관계

부모 양육 특성과 자녀의 영역별 발달 정도의 상관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중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양육스트레스는 의사소통, 소근육운동 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9> 부모 양육 특성과 자녀 발달점수 간 상관관계(저소득 집단)

발달 영역	부모 양육특성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양육 특성	양육 협조	양육실제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
의사소통		.088	.164**	.008	-.124*
대근육운동		.025	.024	.042	-.052
소근육운동		.043	.095	-.027	-.111**
문제해결		.039	.035	-.015	.004
개인/사회성		.057	.037	-.075	-.038

* p<.05 ** p<.01 *** p<.001

2) 고소득 집단의 경우

부모의 양육특성과 양육환경, 자녀 발달을 각 영역별로 비교하였다.

(가) 부모 양육특성과 양육환경의 관계

저소득 집단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적환경의 요소들이 부모의 양육특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심리 특성 중 부정적 자기 효능감과 우울과 상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부갈등과도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협조 정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과 비교적 상관이 높았고 육아지원 가용 인력 정도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실제 및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 협조 정도와도 관계가 있었다.

<표 10> 부모 양육 특성과 양육환경 특성 간 상관관계(고소득 집단)

양육환경특성		부모 양육특성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양육 협조	양육실제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
인적 환경	어머니	(부정적) 자기 효능감	-.189**	-.249**	.035	.410**
	심리적 특성	자아 존중감	.024	.060	-.024	.005
		우울	-.226**	-.273**	.022	.404***
		결혼만족도	.418**	.245**	-.057	-.167**
	부부관계	부부갈등	-.416**	-.334**	.057	.310***
지원인력	사회적 지원 인력	.237**	.325**	.002	-.307***	
지역사회 환경	육아 인프라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048	.085	-.038	-.092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063	.129*	-.097	-.058
	양육 적절성	치안 안전성	.088	.140**	-.179**	-.149**
		사고 안전성	.031	.068	-.124**	-.110*
	전반적 환경 적절성	.161**	.089	-.185**	-.105*	

* p<.05 ** p<.01 *** p<.001

(나) 양육 환경과 자녀 발달의 관계

고소득 집단에서 양육환경특성 중 인적 환경이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바,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 효능감과 우울, 부부갈등이 문제해결 발달과 부정적 상관이 있었다. 상관계수가 낮기는 하였으나, 소근육운동과 양육환경의 적절성 인식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표 11> 양육 환경과 자녀발달점수 간 상관관계(고소득 집단)

양육환경특성		발달 영역	의사 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 해결	개인/ 사회성
인적 환경	어머니 (부정적) 자기 효능감		-.077	-.005	-.059	-.140**	-.029
	심리적 특성	자아 존중감	.051	-.006	.061	.035	.074
		우울	-.077	-.052	-.064	-.129*	-.022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061	.032	.085	.109*	.016
		부부갈등	-.077	-.031	-.118*	-.149**	-.036
	지원인력	사회적 지원 인력	.028	-.008	.104	.104	.043
지역사회 환경	육아 인프라	어린이집 수적 충분성	.032	.024	.078	.020	.030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043	-.108*	.058	.015	-.030
	양육 적절성	치안 안전성	-.004	-.070	.140**	.027	-.022
		사고 안전성	.031	-.058	.122*	-.009	-.031
		전반적 환경 적절성	.042	-.057	.146**	.072	.010

* p<.05 ** p<.01 *** p<.001

(다) 부모 양육 특성과 자녀 발달의 관계

고소득 집단에서도 저소득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모 양육 특성과 자녀발달 점수는 큰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실체가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소근육운동 발달,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부모 양육 특성과 자녀발달점수 간 상관관계(고소득 집단)

발달 영역	부모 양육특성	아버지 양육 협조	어머니 양육실체	어머니 양육지식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의사소통		.079	.178**	-.050	-.124*
대근육운동		.076	.033	-.076	.000
소근육운동		.035	.125*	-.059	-.046
문제해결		.094	.103	-.071	-.067
개인/사회성		.060	.101	-.079	-.060

* p<.05 ** p<.01 *** p<.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소득 집단별 부모의 양육 특성, 자녀의 발달 특성, 육아 환경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더불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양육과 환경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 집단에서 아버지의 양육 협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실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양육 스트레스는 저소득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고소득집단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대·소근육운동 능력이나 개인-사회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고소득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저소득집단은 어머니의 우울 정도와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인력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집단보다 고소득집단에 사회적 육아지원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 중 육아인프라의 측면에서, 보육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여가나 문화 관련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치안 측면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의 안전성, 전반적인 양육 환경 적절성에서도 고소득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으로 구분하여 양육특성, 양육환경, 자녀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인력 등 인적 환경이 양육특성과 상관이 비교적 높았고, 자녀의 발달 정도와는 큰 상관이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집단에서는 양육특성과 의사소통, 소근육운동이 관계가 있었고 고소득 집단에서는 양육환경과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 지역환경과 소근육운동이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양육특성의 관계 분석에서 저소득 집단은 육아인프라와 양육스트레스 간, 그리고 환경적절성과 긍정적 양육실제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고소득 집단은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집단에 따른 양육 지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양육 협조, 양육 실제와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가구소득은 아동이 자라나는 환경의 주요요인이며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이지연, 곽금주, 2008; 이진숙, 한지연, 2004; 이봉주 외, 2010; McCulloch & Joshi, 2000). 특히, 저소득 집단의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양육행동이나 양육실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소득 집단은 고소득집단의 육아인프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과 지원인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를 혼자 감당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고소득 집단의 자녀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언어발달 또는 인지발달과의 관계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실

제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은 사회정서발달과는 달리 아동의 언어와 인지 발달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은 빈곤여부와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봉주 외, 2010). 또 다른 연구는 가구 소득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 능력이 높고(이지연, 광금주, 2008),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어휘 발달에 가구소득이 스트레스와 교육수준보다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임순화, 박선희, 2010).

셋째, 가구소득과 자녀의 양육환경 특성과의 관계를 보면, 가구 소득에 따라 인적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leman, 1988).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은 다른 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지원 인력에 대한 인식이 높고 결혼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인력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안정감은 결혼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원 인력을 낮게 인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은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환경에 있어서도 사회적 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가질 수 있는 고소득집단의 육아인프라와 양육적절성 인지가 높은 것은 거주지역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을 살펴본 결과, 양육환경에서 지역사회환경보다는 인적환경이 양육 특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이 양육실제,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과 고소득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덜 갖고 긍정적 양육 실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같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4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의 어머니를 분석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양육스트레스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부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옥경희 · 천희영, 2012). 안타깝게도 지역사회환경, 양육특성과 자녀의 발달 특성은 높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저소득 집단은 양육특성과 의사소통 또는 소근육 운동과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고, 양육 스트레스, 양육 실재가 의사소통과 소근육운동과의 낮은 상관을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에서도 양육특성과 인지적 문제해결과의 낮은 상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실재와 의사소통의 낮은 상관만이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 특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아동발달 간의 구체적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과 함께 추후에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국가 지원의 타당성과 강화 필요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양육특성 차이 분석을 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아버지의 양육 협조도가 높고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적다. 그런데 저소득

집단의 양육실제와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협조는 양육환경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저소득층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 환경 중 국가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부부관계 개선을 제외하면, 육아지원 인력 등 사회적 인력 지원 개선, 치안, 안전사고 등 전반적 거주 환경 안전성의 제고, 어린이집 확충이나 여가·문화 공간 등 공공시설 이용 편리성 향상이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 양육실제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즉, 저소득층 어머니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사회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상담을 활성화하거나 육아지원인력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특히 지역사회내 주민 상호간 개별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는 모듬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인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의 거주지 주변 생활 환경 개선이 자녀 양육과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정책 입안자가 잘 인지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공연장, 문화전시관 등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소득 집단에 따라 아동발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력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저소득 집단에서 이 분야 발달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실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의 측면에서도 양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실제가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관계 등 양육환경 중 인적환경 측면이다. 또한 인적환경은 아버지의 양육 협조 정도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우울,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양육특성인 아버지의 양육 협조 정도 등은 소득 집단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특히 저소득 집단에 대해 아버지 양육 협조의 중요성과 양육참여방법, 어머니 정신건강 개선과 관련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발달 지원 측면에서는 특히 언어와 인지적 문제해결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 아동발달 점수 차이를 보면, 저소득 집단 만2세 영아에 있어 의사소통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앞서 제시된 정책 제언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언어나 인지 측면의 지원에 관심을 많이 둘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발달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원 인력 정도와 상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의 지원이 간접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긍정적 관련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발달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 강희경(2001).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9(3), 301-308.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경자, 김현경, 김희숙(2011).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어머니의 우울 예측변인과 영아발달 분석.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69-380.
- 서문희, 최윤경, 이세원, 신윤정(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옥경희, 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이경옥, 이정수, 이지영(2011). 아버지의 양육협조,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간의 관계: 첫째 자녀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효과 분석.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397-403.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0
- 이은주, 민하영(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541-549.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정림, 최은영, 도남희, 송신영, 왕영희, 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이주연(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5), 35-48.
- 이지연, 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이진숙, 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이희정(2011). 어머니의 우울이 영유아의 기질적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325-332.

- 임순화, 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 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 (12), 205-224.
- 허계형, Squires, J., 이소영, 이준식. (2006). **K-ASQ(한국형 Ages & Stages Questionnaires)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 Heckman, J. J. (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3), 289-324.
- Kessler, R. C., Galea, S., Jones, R. T., & Parkerd, H. A. (2006).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4(12), 930-939.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 인출.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_UGSupp.pdf에서 2006년 11월 11일 인출.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cCulloch, A. & Joshi, H.E.(2000).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resource: Evidence from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958 British birth cohor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283-304.
- M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u.)*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orrow, V. (2000). 'Dirth look' and 'trampy places' in young people's accounts of community and neighbourhood: Implications for health inequalities. *Critical public health*, 10(2), 141-152.
- Stevenson, H.C.(1998). Raising safe villages: cultural-ec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4(1), 44-59.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

: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박 혜 준(서울대학교 교수)

풍부한 종단연구결과와 인구통계학적 자료는 특정한 학문분야의 수준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과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0년의 3차년도 조사자료까지 공개된 한국아동패널연구결과에 대하여 아동학연구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오랜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모든 연구진과 본 연구결과를 발표해주신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가정관리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생애초기 3년간의 아동발달에 미치는 양육환경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아동학연구의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결과를 읽어보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연구자들은 "생애 초기 3년간은 전 영역에 걸쳐 발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라고 본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동학 연구자로서 우리는 전생애 발달의 토대가 되는 생애 초기 3년간의 시기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명명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성장하는 인간발달의 가소성과 변화가능성의 측면에서 이 시기는 결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민감한 시기'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들을 2020년까지 매해 추적조사를 함으로써, 단일 연령 집단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히고, 대상아동들의 양육환경으로서의 부모와 가족의 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점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에 대한 제시와 해석에 있어서 신중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목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특성과 양육환경을 분석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2010년 3차년도 조사의 전체 가구 중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만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두 집단의 비교는 당연히 명확한 차이를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임을 알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은 가구소득과 함께 부모의 학력과 직업의 특성과 같은 변인을 함께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가구소득별로 각각 20%로 나눈 다섯 집단을 동시에 비교하거나, 두 집단의 특성을 더욱 다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의 특성,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같은 변인들이 포함된다면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점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연구자들은 자녀의 발달특성을 보여주는 변인으로 K-ASQ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ASQ의 특성은 부모가 직접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5가지 발달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선별도구이기 때문에 검사결과의 해석은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과 '문제없음'의 두 집단으로만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 연구결과를 분석한 2009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받은 아동의 98.6%가 정상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3차년도 조사대상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정도에 대한 정보와 K-ASQ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시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속연구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별검사도구인 K-ASQ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패널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 전문가가 수행하는 발달검사를 포함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아동의 수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발달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패널에서 축적한 연구결과에 대한 다면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